

‘명룡대전’ 이재명·‘광철대전’ 안철수 승기… 앞날 ‘청신호’

이재명, 총선 주인공… 전성시대 올해 전당대회 재도전 여부 주목
안철수, 다시 대권 기반 다져
“정부에 대한 매서운 회초리 경험 민생문제 해결 등 책무 제대로 못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구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인천 계양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는 각각 현역 지역구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두 사람의 앞날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당선인은 자기 지역구 선거에다가 전국 지원 유세, 재판까지 참석했음에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에게 낙승하고 민주당의 압승까지 이끌어 이번 총선의 주인공이 됐다.

당 내에서 이재명 당선인에 반기를 들던 인사들은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비로소 이대표의 전성시대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사히 2년간의 당 대표 임

기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 이 당선인이 올해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재도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 당선인이 현재 대장동·백현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스1

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외에도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 2018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관련 위증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위험 요소다.

낙선한 원희룡 후보는 여론조사 상이 대표를 바짝 추격하는 흐름을 만들 어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에서 자신을 어필한 ‘한 방’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은 ‘친노(친 노무현) 적자’라고 불린 이광재 후보를 이기면서 4선 고지에 올랐다. 대선 후보로 출마해선 왕좌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번 총선 승리로 다시 한번 더 대권의 도전할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다. 여론 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에게 따라잡히는 듯한 흐름을 보였던 안 당선인은 실제 개표 결과 여유 있게 이기면서 여당의 중진으로 자리매김했다.

안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것이 정부 여당이다.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선

명성을 부각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조정이 안되자 해결책을 제안한 바 있는 안 당선인은 11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안 당선인은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단계적 증원 방침 마련 ▲의대증원 정책 밀어붙인 책임자 경질 ▲총선 참패 원인 제공한 성찰과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을 요구했다.

반면, 고베를 마신 이광재 후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선에서 강원도지사 선거 패배 이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내다가 다시 제22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남부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분당구의 선거 구도를 바꾸지 못하며 다음 행보를 위한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동훈 “선거 결과 책임지고 비대위원장직 물러날 것”

한, 대통령실과 각 세울 기회 놓쳐
행보 제한적… 당권 잡기 어려워
尹 공동책임론엔 “오롯이 제 책임”

정치 신인이지만 여당의 총선 위기론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패배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비대위원장직 사퇴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총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총선을 전면에 지휘했던 한 위원장은 향후 대권 도전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면서 “국민의 뜻을 존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지지자들과 낙선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11시 기준(개표율 100%)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90석,

국민의미래 18석을 확보했다. 여당이 총 108석을 얻으면서, 개헌 저지선은 지켜냈지만 예상 밖의 참패를 당한 셈이다.

108석을 얻은 국민의힘은 범야권 200석을 막아냈지만, 범야권에 180석을 내주면서 향후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것으로 보인다. 180석을 확보할 경우 각종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가능하고, 200석은 대통령 탄핵소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효화, 개헌 등을 할 수 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나, 14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 제1당 탈환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여당은 지난 총

선과 비슷한 수준의 의석을 얻게 됐다.

이같은 패배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지만, 한 위원장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 취임 후 여당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월 중순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갈등 수습되자 한 위원장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갈

테러’ 발언 국면에서도 한 위원장은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 수직적 당정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게다가 고물가에 따른 ‘대파’ 이슈에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도 급락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한 위원장의 다음 행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당대회에 나서 당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의 공동책임론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는) 제 책임”이라며 “(패배) 원인은 여러분(취재진)이 분석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누리호 개발 주역’ ‘한강벨트 이북 유일 보수’… 초선정치인 기대감 ‘술술’

野 황정아, 김동아, 모경중 당선인
與 김재섭, 주진우, 우재준 당선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일꾼으로서 ‘첫’ 쓰임을 받는 초선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로 불리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된 황정아 대전 유성구를 당선인은 59.76%를 득표해 ‘이재명 대표 사당화’ 현상을 지적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황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며 누리호 개발의 주역으로 주목받았는데, 누리호 3차 발사



황정아 대전 유성구를 당선인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당선인



모경중 인천 서구병 당선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주진우 부산 해운대갑 당선인



우재준 대구 북구갑 당선인

당시 세계 최초로 판대 비행하는 도요셋 인공위성 4기 탑재 설계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동아 민주당 서대문갑 당선인도 올해 36세의 청년 정치인으로 초선으로서 역할이 막중하다. 민주당은 서대문갑 후보를 만 45세 이하 청년 오디션으로

뽑았는데, 최종 3인 경선 결과 김 당선인이 공천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에 민주당에 입당,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알려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 초기에 법률 지원을 담당한 바 있다.

이재명 당 대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

니는 수행비서를 맡았던 모경중 민주당 인천 서구병 당선인도 34세에 국회에 입성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모 당선인은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학력과 경력을 전혀 보지 않고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경기도지사 청년비서관을 뽑는 채용 공고에 도전해 ‘1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21대 의원인 인재근 전 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구에서 이기며 주가를 올렸다. 한강벨트 이북에서 유일하게 보수 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 당선인은 가뜰이나 취약한 국민의힘의 수도권 기반을 다질 청년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선인도 국회에 입성했다.

TK(대구·경북)에선 35세 청년 정치인이 금빛지를 달았다. 우재준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당선인은 박정희 민주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초선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우 당선인은 20대 시절,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에서 청년특위로 활동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